



###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광주 개최

다문화전당 실내 첫 행사... 내달 5~9일 어린이문화원 '건축대전'·'올해의 건축가 100인전' 수상작 등 전시  
 승효상 건축가 강연...한·중·일 국제심포지엄도 마련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문화축제인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물 중 하나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실내에서 열리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건축문화제위원회(위원장 이효원 전남대 교수)는 오는 11월5일부터 9일 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와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함께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가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후원한다. 주제 '문화로 키우다'(Cultivate)는 건축물을 인류의 삶을 형성하는 문화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반전시에는 '제33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입상작 및 입선작 100여 점이 전시된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작된 대한민국건축대전 공모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공모전으로 지난해부터는 국제 공모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작은 건축'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또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작가 100인이 참여, 현대 건축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올해의 건축가 100인'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건축상으로 30년 이상 건축가로 일하면서 현저한 업적을 이룩한 건축가에게 주는 'Gold Medal' 수상작을 비롯해 김종성건축상, 무예25년 건축상, 아천건축상 수상작이 함께 전시되는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전 등이 열린다.

특별전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문화 공간 조성에 기여한 지자체 및 단체, 개인에게 주는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수상작품들이 전시된다. 올해는 제주도 서귀포시가 '유토피아로'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경기도 안양시의 '김중업 박물관', 거리마당상은 경기도 파주시의 '열린도서관 지혜의 숲', 두레나눔상은 강원도 정성군의 '반월'에 비해 그림자 없는 마을'에게 각각 돌아갔다.

젊은 건축가들의 잠재적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젊은 건축가전도 열린다. 올해는 광석준·이소정(OBBA 건축사사무소), 김민석·박현진(노션 아키텍처), 김수영(건축사사무소 숭비)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상'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우리사랑상'



젊은 건축가상 광석준·이소정

광주 건축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됐다. '광주건축 100년'전은 일제 강점기 형성된 양림동 일원의 근대건축물 도면과 모형 전시를 통해 광주건축 100년의 역사와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는 자리다. '컬티베이트'전에서는 광주 기성 건축가와 신진 건축인들이 푸른길 주변의 공·폐가를 자유롭게 설계 계획한 작품이 선보인다. 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가했던 초·중·고등학생들의 작품도 소개된다. 행사기간 열리는 강연과 세미나도

주목할만하다. 5일 오후 5시 승효상 건축가의 특별 강연이 열리고, 이날 오후 7시에는 젊은 건축가 포럼이 진행된다. 또 6일에는 '친환경건축'을 주제로 한 세미나(오후 2시)와 'Gold Medal' 수상자인 김종성 건축가의 강연(오후 4시)이 이어진다. 7일 오후 2시에는 중국과 일본, 한국의 건축가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고, 8일 오후 3시에는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광주건축의 새판짜기'를 주제로 주제강연을 한다. 개막식은 5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 반갑다! 광주국제음악제

내셔널필, 내달 6~8일  
 도쿄프라임심포니 참여  
 우메즈 마사요시 등 협연

우메즈 마사요시

블라디미르 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에서 대규모 음악제를 꾸리는 건 만만찮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민간 연주 단체인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GNPO)가 지난 2009년부터 열고 있는 국제음악제는 반갑다.

백홍승씨가 예술총감독을 맡은 6번째 광주국제음악제가 오는 11월6일~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6일 공연은 가토 아츠시가 이끄는 도쿄프라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장식한다. 첫곡은 비발디의 '사계'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섭(서울대 강사)씨와 김지인·박가은·김경이 협연한다. 이어 모차르트의 '볼루트 협주곡 2번'을 안영지(줄리어드 박사과정)씨가 협연하며 바흐의 '두 대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피아니스트 동수정과 히다카 아미가 연주한다.

역시 도쿄프라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7일 공연은 실력과 협연자들이 눈에 띈다.

우메즈 마사요시가 비발디의 '피콜로협주곡 다장조'를, 기시가미 쥬(도쿄메트로폴리탄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가 모차르트의 '호른협주곡 제2번 내림 마장조'를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신창동 유적서 BC 1세기 칼집 장식품 나와



'검초금구'

### 5세기 추정 발 유적도 확인

초기 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국내 대표 저습지 유적인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기원전 1세기 무렵의 것으로 보이는 칼집 장식품 등이 나왔다.

또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발 유적이 확인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이영철)은 30일 "이

곳을 발굴조사한 결과 쇠갈 부속구 일종인 '검초금구'와 5세기 삼국시대 발 유적이 영산강 유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개간된 경작지 관련 3개 문화층을 확인했다.

이 중 신창동유적 최하층에서는 두형토기(豆形土器), 삼각형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등과 함께 검초금구가 출토됐다.

이 검초금구는 쇠갈을 보호하는 칼집의 부속구로서 빠르면 기원전 1세

기, 늦어도 기원 전후 무렵 유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신창동유적에서 드러난 삼국시대 발 유적은 이전 국립광주박물관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사에서 드러난 마한·백제시대 마을 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신창동 사적지의 삼국시대 유적 경관 복원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발은 고려시대인 13세기와 조선시대인 15~18세기 문화층에서 더 확인됐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논으로도 개간된 흔적이 조사됐다.

한편 신창동유적은 40만㎡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주거와 무덤 등 여러 유구가 분포돼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판소리 뮤지컬 '심청'으로 본孝

전통문화관 내일 퓨전 창극·2일 전통가무악

11월의 첫날, 광주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전통문화관에서 퓨전 창극과 전통가무악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30일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공연에서 심청가를 퓨전창극으로 각색한 흥양예술단의 '심청 그리고 효'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소리꾼 3명이 판소리에 뮤지컬 형식을 가미해 퓨전 창극으로 엮어가는 이번 공연은 대기중에서 핵가족으로 바뀐 현대 사회에서 퇴색된 효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을 담았다. 흥양

예술단은 국악 대중화를 위한 문화예술공연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2007년 창단한 민간예술단체다.

또 오는 2일 오후 3시에는 지역의 젊은 전통예술인들을 초청해 '무등! 풍악 속에 울리는 풍악'을 주제로 전통가무악 공연이 펼쳐진다.

양희정(광주시립국극단)의 '박종선 류 아쟁산조'를 시작으로 김영연(광주시립국극단)이 교방무를 선보인다. 무료 관람. 문의062-232-1501.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 5·18 음악의 역사... 그리고 희망

국악그룹 황토제 정기 연주회...내달 3일 광주문화회관

창단 15주년을 맞는 국악그룹 황토제(대표 이양재) 정기 연주회가 오는 11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대는 배우들이 스토리를 진행하는 음악극 '오월의 꽃'(5·18 Story-Playing Performance)이다. 5·18 관련 음악들의 역사적 정리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공연이다.

1980년 5·18 당시 정세현씨 등 민중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널리 리어졌던 곡부터 최근 기념곡에 이르



까지 5.18 관련 음악들을 다양한 국악 창작곡으로 새롭게 작, 편곡한 곡들을 들려준다.

주요 작·편곡가는 유태환과 지역 출신의 황호준, 김선제·김선씨다. 티켓 가격 일반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10-9212-5430. /김미은기자 mekim@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주요 도시 **KORAIL** 한국관광공사

11월 15일(토)	당일 기차여행	11월 21일(금)	무박2일 기차여행	12월 5일(금) 철원	무박2일 기차여행	12월 24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모세의 기적 제부도·수원화성·수원행궁		부산 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도피안사·고석정·백마고지·제2땅굴		남이섬·춘천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08:20	광주송정역 출발	23:35	광주역 출발(광주송정역 경유)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12:09	수원역 도착 후 출발	06:00	부산 송정역 도착 후 출발	07:00	신탄리역 도착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13:00	한국판 '모세의기적' 제부도 / 수원화성(연무대) / 수원행궁 관광	06:20	용궁사/해운대/동백섬/APEC누리마루/이기대공원둘레길/자갈치시장 관광	07:30	백마고지/노동당사/도피안사/인보관광(제2땅굴)/고석정 관광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19:25	수원역 출발	17:22	부산역 출발	15:30	신탄리역 출발	16:18	춘천역 출발
23:04	광주송정역 도착	22:59	광주역 도착	22:00	광주역 도착	22:14	광주역 도착
성인 85,000원~	경노 82,000원~	성인/경노/청소년 69,000원~	소아 65,000원~	성인/경노 89,000원~	소아 85,000원~	성인/경노/청소년 85,000원~	소아 79,000원~